교회중장기발전위원회 2차 회의록

■ **일 시** : 2020년 7월 5일(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서제빌딩 2층 서제뜰 공부벙
■ **참석자** : 정인숙 김효식 이현우 이동수 이충언 정효숙 박정흔 김영섭 이승숙 박희성 윤주삼 염태정 정원진(목회실) 총 위원 13명중 12명 참석

1. 12시 35분, 위원장 정인숙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다.
2. 1차 회의록 낭독을 서기 염태정이 하다.
3. 읽어 오기로 했던『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감상을 박정흔 권사가 대표로 발표하다.

논골마을에 세 번이나 찾아가 김경옥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상적이고 큰 비전을 갖고 출발해도 유명무실해진 공동체가 많이 있다. 서울제일교회는 지속성이나 효과 중심으로 고정된 계획이 아닌, 현실에서 출발 가능하고 관심과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시작되면 좋겠다. 공동체에 미친 열정있는 20명의 활동가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4. 돌아가면서 그동안 생각해온 것을 나누다.

● 이현우장로 :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공동체는 육아라든가 하는 니드를 중심으로 하나 교회는 절박한 니드가 없으므로 5년후 10년후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의논하여 종착역을 그려놓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 김효식장로 : 우리가 자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하는데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 정인숙장로 :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 열심이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아픈 분도 많아지면서 교회의 존폐위기를 느끼고 목사님께서 그 해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셔서 1년간 공부는 하였지만 전교인이 공유한 것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서 사실은 아직도 초기단계이다.

● 정효숙권사 :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씨앗을 심어야한다. 당장 몇 사람이라도 시작을 한 후 방향을 찾아나가고 나머지는 이를 도와서 뭘 할지를 생각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논의가 매우 모호하고 자신의 역할을 모르겠다.

● 염태정권사 : 1년간 공동체 공부를 하고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았다. 일단 두 가정이라도 공동생활을 시작해보라는 책을 따라 김효식장로님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안되었다. 공부후 여름에 1박을 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이도 불발되어 실행으로 가는 것은 주춤하게 되었다. 이현우장로님이 우리에게는 니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와 우리 자신이 고령화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니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대인과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할 수 없다. 공동체성이 높은 교회를 지향하는데 개인이 고립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영섭집사 : 일단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을 모시든지 뭘 하든지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논의해도 잡히는 것이 없다. 교회가 장소를 구해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좋겠다.

● 윤주삼권사 : 건물을 사서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색깔을 구체화시키고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신앙공동체이다. 특성이 명확해지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생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적인 토론과 공부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년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은 실버들만 올 것 같다. 출생률 감소로 인구 감소, 군대 모병제, 빈곤층 급증, AI영향이 커져 사회는 물론 교회도 지배할 것이고 교회의 매관매직, 신학교 없어지고 사이비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승숙집사 : 1년간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다른 공동체들의 경우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공동체 영성훈련을 1주일에 3시간 이상 하고 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사색으로 틀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논골의 경우 그 지역 출신 지역사회조직 전문가가 들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전략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기에 가능했다. 교회의 청년 담당자나 소모임담당자가 전문적인 조직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20명 정도 핵심인력을 훈련시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동체 만드는 것보다 선행해야 한다.

● 이동수장로 :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논의도 하고 있겠지만 향린교회에서 양평에 땅을 실제로 사고, 경험을 해보았는데 쉽지 않았다. 땅을 사고 나서도 정말 쉽지가 않다. 다들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의 계획을 들어보아 가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빠른 논의라고 생각한다.

● 박희성청년 : 청년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면 결속력이 많이 부족하다. 신앙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만 따라서 청년들이 오기 어렵다.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야 된다. 등산이라든가 이승숙 집사님 말씀하신 소모임을 통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공동체에 동의는 하는데 공동체를 먼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이 맞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필요하다.

● 정인숙장로 : 두 개의 바퀴를 같이 굴려야 한다.
1) 공동체 지향의 한 바퀴를 돌린다.
2) 우리 교회에 청년들은 좀 있는데 30~40대가 없다. 10년 후면 우리가 70대 80대가 되는데 일할 사람이 비게 된다. 우리 자식들 세대가 없다. 자식과 대화를 해보니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당위성만 강조하여 젊은이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젊은이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영성으로 깊이 위로해주는 터치가 필요하다.

● 정효숙권사 : 윤영애집사 결혼식에서 향린교회 출신의 청년들이 어린 시절을 함께했기 때문에 10년만에 만나도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서울제일교회는 길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꼈다. 그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

● 이충언장로 : 공동체라 하면 수도원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에 향린교회에서 남산자락에 생활과 예배공동체를 꾸린 적이 있는데 생업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공동거주 개념은 성공하기 어렵다.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친교와 소통의 장을 같이하는 것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친교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위로와 평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데 90%의 에너지를 소모하여 교회가 땅만 사놓고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심에 하나, 지역에 하나, 네트워크도 병행하는 느슨하고 포괄적인 공동체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 이현우장로 : 중장기발전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요약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1) 이곳에 계속 있으면서 젊은 층을 불러모으는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2) 젊은이가 오지 않으므로 우리가 공동체 마을로 들어가서 시골도 있겠지만 서울

에서도 젊은이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마을을 섬기며 교회의 역할을 찾아 한다. 의견이 모아진다면 교회의 이전도 포함하여 장소를 선정한다. 찬성하는 인원이 많고 추진력이 있다면 그 전 단계로 선교센터를 만들어 문화사업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한다.

● 정원진목사 : 재작년부터 겪었던 교인감소로 대책이 없으면 죽겠다는 진단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발했다. 작년에 향린교회 교인이 20여명 오셨지만 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아 유지하는 정도이다. 이분들도 60~70대이므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하다. 서울제일교회의 역사와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의 색깔을 찾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교회의 모델을 찾고 좁혀가는 것이 이 모임의 할 일이다.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신학은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 성경공부는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올려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액션이 나와야 된다.

● 이충언장로 :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두 파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기는 어느 파로 갈지 생각해오고요.
1) 현실파 : 10년후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철거당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을 그 시점에서부터 생각하여 현실적으로 준비한다.
2) 이상적 모델파 : 바람직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모델,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방법을 찾아본다.

● 정인숙장로 : 제가 말한 두 바퀴로 굴려야 한다는 것과도 통하네요. 이충언장로님 카톡방에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 정효숙권사 :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벼락같이 온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계기에 벼락같이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5. 다음 모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23일에 하기로 한다.
6. 이현우장로의 기도로 폐하다.